

독락당 원림 경관조영에 관한 연구

정윤영* · 성종상** · 배정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A Study on Managing the Landscape in Dok-Rak-Dang Garden

Chung, Yun-Young* · Sung, Jong-Sang** · Pae, Jeong-Han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literary works and references related to Dok-Rak-Dang(獨樂堂) and the attributes of managing the landscape in Dok-Rak-Dang Garden based on the assumption of position and the spatial structure revealed in the site.

Hoe-Jae Lee Eon-Jeok(1491-1553), a distinguished scholar of Neo-Confusionism, built Dok-Rak-Dang and managed the surrounding areas during his retirement years. He called the mountains, stream, and rock along and near the Ja-Ge Stream Four Mountains and Five Platforms(四山五臺). Before he named these, they were not considered special. The Four Mountains which are Do-Duk in north, Mu-Hak in south, Hwa-Gae in east, and Ja-Ok in west enclose Dok-Rak-Dang and the surrounding areas. The Five Platforms, Se-Sim, Gwan-Eo, Yeong-Gue, Jing-Sim, and Tak-Yeong, in order from downstream, are places with beautiful scenery in Ja-Ge Stream.

The attributes of managing the landscape in Dok-Rak-Dang Garden are the following:

One is the spatial integration of what is natural and artificial as the attitude of aesthetic experience in accord with nature. Another is flexible territorialization as the way of organizing spaces in nature from the experiential aspect. The other is place making of personalized nature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observing, choosing, and naming landscapes in nature. Four Mountains and Five Platforms function as landscape bases and elements to appreciate nature aesthetically.

Those attributes are different from the attitude of constructing spaces. Rather, they originate from the traditional view on the appreciation of nature. Above all, place-making in nature was acquired from designed spatial structure and experiential aesthetic appreciation in the space through observing, choosing, and naming landscapes in nature reflecting creator's own ideological and aesthetic thoughts, and it might be explained as one of practical ways of Korean traditional gardening.

Key Words: Four Mountains And Five Platforms(四山五臺), The Spatial Integration Of What Is Natural And Artificial, Flexible Territorialization, Place Making Of Personalized Nature

Corresponding author: Yun-Young Chu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Tel.: +82-2-449-6482, E-mail: cyy0904@lycos.co.kr

국문초록

이 연구는 문헌고찰과 현지관찰을 통해, 회재 이언적이 조영한 독락당 원림 내 장소들의 위치를 추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원림의 경관조영특성을 분석하였다. 회재가 은거를 위해 독락당과 함께 조영했던 원림 즉 자계주변공간은, 회재 이전에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었지만, 회재가 그곳을 거닐고 관찰하면서 산과 물과 바위를 선택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사산오대'라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사산오대의 사산은 독락당 일곽을 위요하고 있는 북에 도덕, 남에 무학, 동에 화개, 서에 자옥산을 말하고, 오대는 자계계곡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바위에 이름 붙인 세심, 관어, 영귀, 징심, 탁영대를 말한다.

독락당 원림의 경관조영 특성은 자연과 합일하는 미적 체험의 태도인 '인공과 자연의 공간적 연결', 자연 내의 공간을 체험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영역화', 자연을 관찰하고 경관을 취하여 이름을 붙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한 '사유화된 자연의 장소화'에 있다. 원림 내에서 사산오대는 자연을 미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경관 거점이자 요소로 기능한다.

그 특성은 자연을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구축적 조형 태도와는 구별되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즐기는' 전통적인 자연관에서 비롯되었고, 조영자의 사상적, 미학적 관점이 취경과 명명의 방법으로 의도된 공간 질서를 만들고, 미적 체험을 통해 '장소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구축 중심의 정원조영과는 구별되는 실천적인 한국적 정원조영의 태도를 보여 준다. 연구의 결과는 전통정원의 미학적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제어: 사산오대(四山五臺), 인공과 자연의 공간적 연결, 유기적 영역화, 사유화된 자연의 장소화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수(山水)¹⁾를 즐겨했던 옛 사람의 문화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조영(造營)하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즐기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빼어난 경치를 찾아서 이동하며 미를 체험하는 '탐승(探勝)'과 그윽한 곳에 유유자적 머무는 '유거(幽居)'라는 미적 체험의 행태로 나타나고, 그 체험들은 미적 체험자에게 각기 다른 풍경을 만들어 주게 된다. 이 때 풍경이란 단순히 경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재현(Representation)의 미를 실현시킨 장'²⁾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자연관에서 표출된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경관조영기법 중, 경관을 선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취경(取景)'과 주관적 의식의 산물로 자연을 수용하는 태도인 '명명(命名)'을 구체적인 공간에 대응시켜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명명'의 조영기법이 전통정원과 도학적 문학작품연구에서 공식화된 '관념적 공간'¹⁾의 구현일 뿐 아니라, 조영자가 공간적·감각적으로 자연을 즐기고 미적 체험을 재현했던 장소이자 원림을 조영하는 실천적 기법의 하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16세기 중반 조선조 성리학의 정립기에 조영된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 1491-1553)의 독락당(獨樂堂)일곽과 그가 명명한 사산오대와 자계 주변 공간을 공간적·경관적으로 분석하여,

회재에게 재현의 대상이 된 '산수미'를 해석하고, 취경과 명명을 통한 원림의 조영을 확인하여, 제한적이지만 유형적 정원양식 부재에 대한 입장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독락당 원림을 대상으로 '취경'과 '명명'이 원림을 조영하는 실천적 기법의 하나임을 실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16세기 초 조선의 명현인 회재 이언적이 짓고 수년간 거주하였던 독락당(보물 413호)과 이를 포함한 주거일곽(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일대), 인접한 자계주변공간과 사산오대를 공간적 대상으로 하고, 독락당에 관련된 문학작품 및 문헌자료를 내용적 범위로 하고 있다.

문헌자료 검토와 현장답사를 통해 공간의 특성과 체험적 측면을 조사하고, 각각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문헌자료는 독락당을 복축한 회재 이언적의 문집과 노계 박인로(蘆溪 朴仁老, 1561-1642)의 가사 '독락당' 등을 비롯하여 문화재청 독락당 실측조사보고서(2002) 및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여주이씨 독락당 편(2007) 등을 들 수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독락당 관련 연구는 대부분 건축분야에서 행해졌고, 회재의 사상이나 시문학에 대한 연구 중 일부가 관련성을 가지며, 조경분야에서는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

독락당 건축에 관한 연구의 시초는 김관석의 연구(2004; 2005)로 건축물의 건립연대를 조사하고, 관련자료와 도면을 정리하여 독락당 일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김봉렬(2002; 2006)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회재의 사상적 배경과 공간구성방법 및 특성을 분석하여 건축물의 의미해석에 대한 틀을 마련했다. 이후 연구로 김성원(1998)은 담과 마당의 관계를 둘러싸에 의한 비움이라는 공간의 특성으로 해석하여 은둔을 위한 건축의 외형적 측면을 강조했고, 박해성(1999)은 회재의 생애와 문학, 사상 등을 건축적 공간표현의 배경으로 상관성을 모색하는 연구를 했으며, 윤일이(2002)를 비롯한 이후의 연구들은 회재의 건축관과 건축공간해석에 관한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2년 문화재청의 독락당 실측조사보고서(2002)는 건축 및 유관자료를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김석수와 최효승(2003)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의 연구에서 선행 연구자의 연대 추정과 주요 시각을 최근까지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다소간의 상이점이 발견되는 이유는, 기록과 사료가 많지 않아서 정확한 시기추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연구의 한계를 들고 있다.

조경분야의 연구에서 이승민과 최기수(2002)는 회재의 사상과 문학에 나타난 조영관을 분석하여 조영자의 공간조영원리를 도출하고자 했고, 강순영(2009)은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의 시문분석을 통한 독락당 일대의 경관을 경관요소와 조망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조경분야의 연구 역시 건축의 선행연구를 사실화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자료의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원림영역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점과 주로 건축 내부에서의 조망을 다루거나, 문학에 등장하는 재현된 경관요소에 집중함으로써, 실제 외부공간으로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이나 국문학 연구와 조경분야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경분야의 연구으로써 앞서 언급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문과 유관자료 및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하여 경관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조경적 관점에서 원림영역의 연구를 구체화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독락당 내부에서 외부 원림으로 확장하여 기존 조경분야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II. 독락당 일곽의 조영과 공간적 특징

독락당 일곽의 조성과정은 1515년부터 1623년 이후까지 약 100여년에 걸쳐 증축의 과정을 겪었다. 독락당이 위치한 계정 마을에는 신라 때 창건되어 19세기까지 정혜사가 있었고³⁾, 회재의 부친이 소유한 정자가 정혜사 가까이에 있어서 유년시절 이곳을 방문하고, 머물며 학문연구와 수양을 하였다. 독락당 일곽에서 안채는 회재가 25세(1515)때 석씨부인의 재력으로 숭방채와 함께 지어졌고, 42세(1532)에는 파직된 후 은거생활을 위

해서 별당 독락당을 지었다. 계정은 부친이 소유하던 정자로 회재가 독락당을 개축하면서 함께 보수하여 2칸 방을 덧달아서 거처할 수 있도록 했다. 47세(1537) 복직될 때까지 이곳에서 은거생활을 하였으며, '임거십오영'과 '징심대죽경'과 같은 시를 통해 그 당시의 생활과 독락당 일곽과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다. 회재 사후 1555-1623년 사이에 사당 신축, 1650년에 계정 복축, 1835년 어서각 신축, 조선말기 솟을대문과 공수간 신축, 1950년 이후 안채가 복축되었다(김성원, 1998).

독락당의 의미는 '홀로 즐겁다'는 뜻으로 은거생활의 원형을 송나라 사마광(司馬光, 1018-1086)에게서 찾을 수 있다. 사마광은 "독락(獨樂)이란 홀로 즐기려는 것이 아니다.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남들과 같이 나누고 싶지만 세상 사람들이 전원을 버림으로써 독락이 된다."고 하여 철저히 개인화된 즐거움으로 여겼으며, 회재의 독락 역시 유림사회는 물론 양동의 일가친척도 외면하고, 자계(紫溪) 골짜기에 은거하여 개인화된 자연만을 주된 교유상대로 한 것으로 보아서, 사마광의 독락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입지로 보면 독락당의 좌향(坐向)은 '임좌병향(壬坐丙向)'으로 정남에서 동쪽으로 15° 돌아앉아서, 무학산이 안산이 되고 서북의 도덕산이 주산이 된다. 자계는 형산강(兄山江)의 지류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으로 안강평야가 있다. 독락당 일곽의 임좌병향은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황천살(黃泉殺)에 해당되어 입지 시 금기하는 좌향이고, 독락당 일곽의 채와 담, 문의 위치도 피해야 하는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조성 시 풍수지리의 법술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15° 정도 틀어져 있는 것은 팔간과 일치하여, 주택에서 절대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방향을 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독락당의 공간구성은 안채와 사랑채, 정자(계정), 전면의 공수간과 숭방채의 4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당, 어서각 등 부속물이 첨가된다. 독락당은 한국 전통건축의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정면 4칸, 측면 2칸의 짝수 칸살이의 특이한 평면형식으로 구성된 별당이다. 규모에 비해 낮은 기단과 지붕은 전체적으로 수평적인 비례감과 안정감을 준다. 채를 마당의 중심에 배치하거나 채와 담장의 면을 일치시킴으로써 정형의 'ㄱ'자형 마당을 유지하고, 동선을 통제하여 시각적으로 은폐된 미로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독락당 마당은 4면이 높은 담으로 위요되어 있어서 내부와 외부에서 시선이 차단되어 폐쇄적인 공간을 형성하지만, 외부 담장에 낸 살창을 통해 자계로 개방되는 시선의 처리나 건축의 정면을 자계를 향하게 한 계정의 트여진 마루는 자연과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개방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독락당 뒤에는 회재가 심었다는 중국주엽나무(천연기념물 115호)가 있으며, 안채 뒷마당에도 오죽밭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독락당 마당에는 향나무, 산수유, 주목, 무궁화, 무화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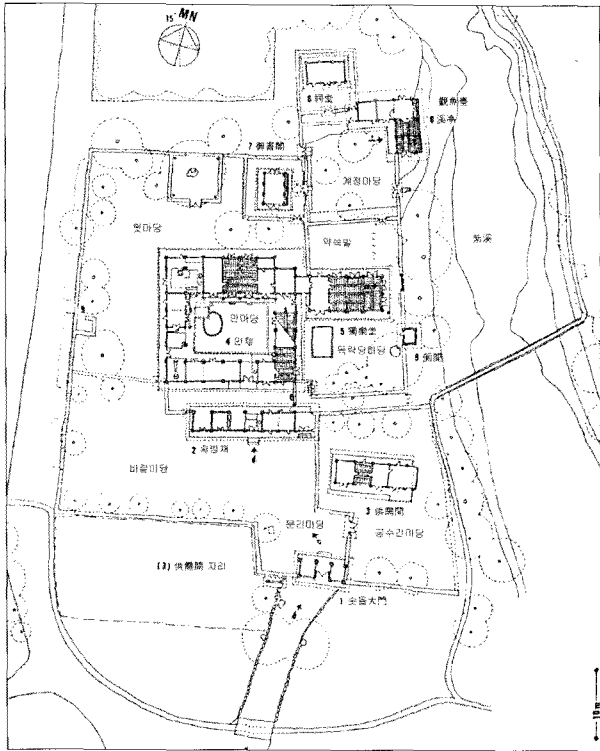


그림 1. 독락당 일괄 실측배치도 (김관석, 1984)
현재 자계를 가로지르는 배수로는 없어졌고, 독락당 동측 경사지에 자연석 석축을 계단식으로 조성.

모란 등이 있으며, 계정마당에는 향나무와 무궁화, 산수유, 모란 등이 식재되어 있다. 정지(부엌) 서쪽 마당에 우물이 있었으나, 몇 대 전에 북쪽 송림(松林) 뒤로 옮겨졌다(김관석, 1984).

III. 사산오대와 자계주변공간의 구성

1. 사산오대와 자계주변공간의 명칭과 의미

회재는 마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네 곳의 산, 도덕(道德), 화개(華蓋), 자옥(紫玉), 무학(舞鶴)을 사산(四山)이라 하고, 독락당 옆으로 이어지는 계곡을 자계(紫溪)라 했으며, 자계의 경치 좋은 다섯 곳, 탁영(濯纓), 징심(澄心), 관어(觀魚), 영귀(詠歸), 세심(洗心)을 오대(五臺)라 하였다. 그 외에 자연 주변의 자연물에 조기(釣磯), 용추(龍湫), 사자암(獅子岩)에 이름을 붙이고, 연당(蓮塘), 송림(松林), 죽림(竹林)을 조성했다.

사산 중에서 자옥산(紫玉山)은 원래 이름이며, '자색의 옥'이라는 의미이다. 자(紫)는 도가에서 신선이 사는 곳, 자하(紫霞)로 쓰이고, 불가에서는 극락세계에 있다는 자색 구름과 관련지어 승려들의 가사(袈裟)가 자색이다. 이렇게 '紫'의 의미로 볼 때 자옥산은 도가적 혹은 불가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도덕산(道德山)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회재가 지향하는 바가 도학(유학)임을 말하고, 안산인 무학산(舞鶴山)은 산세가 학이

춤추는 형상을 한데서 비롯되었으며, 화개산(華蓋山)은 꽃이 덮여진 형태 혹은 빛의 우산을 뜻하는 일산(日傘)을 비유하여 명명했다.

오대는 자계 주변 풍광 좋은 곳에 있는 바위에 명명한 것으로,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한다는 비유로서 징심대(澄心臺), 어부사(漁父詞)의 의미를 담아 세속을 넘어선다는 비유의 탁영⁴⁾대(濯纓臺)가 있다. 관어대(觀魚臺)의 관어는 『장자』 「추수」편에 나오는 장자와 혜자가 물고기를 보면서 논쟁한 고사⁵⁾와 관련될 수 있고, 달관의 경지에서 무한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계정 아래 반석을 관어대로 명명했다. 영귀대(詠歸臺)는 『논어』 「선진」 편에,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서 바람 쇄고 시를 읊조리면서 돌아오리라"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의미를 담고 있고, 세심대(洗心臺)는 옥산서원 앞에 있는 너럭바위로 용추(龍湫)에서 떨어지는 물로 마음을 씻고 자연을 벗 삼아 학문을 구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허균, 2002).

사산오대 외에 자계(紫溪) 주변공간에는, 관어대에서 자계 건너편으로 낚시를 하였다는 조기(釣磯), 세심대와 그 옆 폭포 아래에 있는 수심이 깊은 자계의 일부인 용추(龍湫), 징심대 북쪽 자계에 범바위(虎巖)와 사자암(獅子巖)이 있고, 회재와 아들 전인이 직접 조성한 영귀대 아래에 방(方)형 연당(蓮塘), 독락당 일괄 북쪽에 소나무숲(松林), 독락당 일괄의 동측 자계 건너편 언덕에 있는 대나무숲(竹林)이 있다(김관석, 1984).

회재는 독락당 주변의 자연요소인 물, 산, 바위에 이름을 붙임(命名)으로써, 이전까지 평범했던 자연을 특별한 장소로 만들었다. 회재가 명명한 이름들에서 유교, 도교, 불교적 사상의 폭넓은 이해를 엿볼 수 있고,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의 시에 드러난 것처럼, 이곳은 풍류(風流)의 공간이자,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펼친 특별한 장소였다(김봉렬, 2006).

2. 사산오대와 자계주변공간의 위치추정

사산오대와 자계주변공간의 위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김관석(1984) 연구의 '독락당의 주위환경'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사산과 오대 중 관어대, 영귀대, 세심대, 자계 주변의 조기, 용추, 송림, 죽림은 선행연구 간에 위치가 일치하고, 현장관찰로 분명하게 확인되나, 송림과 죽림은 조영 당시의 분포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당의 위치는 김관석 연구를 근거로 확인 가능하지만, 희미한 지형조작의 흔적만이 남아있어 평상시 눈에 잘 띄지 않고, 우천시 비가 고이는 모습으로 당(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김관석 연구의 자료도면에 오표기된 사자암과 범바위⁶⁾가 김성원(1998)과 강순영(2009)의 연구에 그대로 쓰였고, 김성원(1998)의 연구에서 징심대의 위치가 기존 연구와 상이하며, 이승민과 최기수(2002)의 연구에서는 탁영대의 위치가 상이한 점을 볼 때,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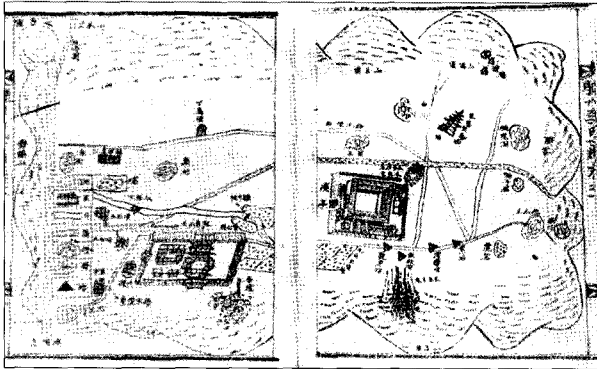


그림 2. 여주이씨 세보 1권
자료: 옥산마을지도, 1956.

교·분석과 현장답사를 통해 위치를 새롭게 추정할 필요가 있다.

1) 위치추정의 근거

정심대와 탁영대, 범바위와 사자암의 위치확인을 위한 문헌 자료로, 독락당과 사산오대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과 독락당 현판과 편액⁷⁾, 기타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했다. 문학작품으로는 1) 회재의 '임거십오영'과 '정심대즉경⁸⁾', 2) 노계 박인로의 가사 '독락당⁹⁾', 3) 오숙의 글 '유옥산서원기¹⁰⁾', 4) 하계(霞溪) 이가순(李家淳)¹¹⁾의 '옥산구곡'을, 독락당 현판과 편액에 시문들 중에는, 5) 관원 박계현¹²⁾의 '자계16영', 6) 수재 노수신의 '독락당 14영', 7) 박소립의 '독락당 14영'을, 기타 문헌자료로는 8) 경주읍지(1933)와 여지도서(1861), 9) 여주이씨세보 1권 옥산마을지도(1956)를 대상으로 했다. 기존연구로는 건축과 조경분야 연구의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는 10) 김관석(1984)의 연구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했다(그림 2, 표 1 참조).

시가와 문헌자료의 공간특성을 보면, 1) 회재의 '임거십오영'은 15수 전체가 하나의 연결된 형식을 띄고 있으며, 끊임없는 귀 자연의 의지와 자연에 대한 강렬한 자아의 표출을 담고 있다(장도규, 2002; 2003; 2006). 은거의 삶과 자연의 관조가 결합된 시 속에 공간의 체험적 측면이 내포되어 있어 경관 및 정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2) 노계 박인로의 '독락당'은 독락당을 찾아가 빼어난 경치를 감상하며 회재 선생의 자취를 따라보고 선생을 추모하는 글로서, 공간을 이동하며 감상하는 순서대로 글을 쓰는 조선중기 기행가사의 일반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독락당을 중심으로 동쪽과 북쪽,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며 원림을 감상하는 동선의 구성이다. 3) 오숙의 '유옥산서원기'는 옥산서원에서 출발하여 자계 하류 세심대에서 상류로 이동하면서 주변을 유람하며 쓴 글이고, 4) 하계 이가순의 '옥산구곡'도 구곡가의 특징대로,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하며 아홉 개 경치좋은 곳을 노래했다. 독락당 현판 중 5) 박계현의 '자계16영' 역시 자계 하류에서 독락당을 거쳐 상류로 이동하면서 순차적으로 각각의 공간과 그 공간에서 조망되는 원경의 산을 감상하는 시의 흐름을 가

지고 있다. 6) 노수신의 '독락당 14영'과 노수신의 시를 차운한 7) 박소립의 시는 각 공간을 개별적인 시의 소재로 읊어서 공간 간에 관련성은 없고, 각 공간의 특성과 정서를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다. 8) 경주읍지(1933)와 여지도서(1861)는 건물에 걸린 편액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회재의 독락당 일괄 조영배경과 오대의 위치와 형태, 규모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 작품과 문헌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2-4)의 작품들은 조선 초중기 기행가사와 구곡가의 공통적인 형식적 특성인, 경험하는 순서대로 쓰인 글로, 감상자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공간들은 시각적·공간적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5)의 작품은 공간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계에 배치된 순서에 따라 시가 쓰여서, 각 공간 간에 위치와 영역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원림을 감상했던 체험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2) 위치추정

2)-5)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자계의 하류로부터 세심대, 관어대-영귀대(관어대 맞은편), 정심대, 탁영대의 배치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위치와 형상은 2) "탁영대 연천(웅덩이, 못)", 3) 정심대와 탁영대는 "정혜사 조금 동쪽, 그윽하고 빼어난 정취", 5) "탁영대 아래에 계류가 깊은 곳까지 맑고", 8) "탁영대는 정심대와 쌍으로 솟았고"라는 표현으로 볼 때, 정심대는 관어대에서 자계 상류 300m지점 일대에 높이 솟은 바위를, 탁영대는 정심대에서 상류 100m 지점 일대에 솟은 바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9)와 10)이 회재 후손의 설명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견해인 것은 사실이지만¹³⁾, 탁영대를 폭포 주변으로 보는 관점은, 2)-5)의 배치순서 외에도, 2)폭포 상류에 정심대, 다시 상류에 탁영대를 언급한 점, 4)폭포암곡을 탁영대곡과 구분해서 보고 있는 점과도 차이가 있어, 후손에게 구두로 전해질 때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⁴⁾.

5) "자계의 상류", 9) 자계의 서쪽에 표기, 문화재청 실측조사보고서 "안태봉 자락 절벽 같은 암석", 현지답사의 결과로 볼 때, 사자암은 안태봉 자락 장산서원 동쪽에 있었으나, 저수지의 경사진 콘크리트 둑을 만들면서 없어졌고, 범바위는 탁영대에서 북북동쪽 150m 지점 화개산 아래 눈에 솟아있다(그림 3 참조).

현재 자계 주변 환경은 조선 당시와 비교해 변화되고 훼손되어 독락당 원림의 원형과는 차이가 있고, 위치추정의 근거가 된 문헌들 역시 시대가 달라서 기록된 당시의 환경이 원형과 일치하지는 않으며, 문헌이 문학작품이라는 특성상 정확성을 담보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위치추정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추가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3. 조영공간의 특성

표 1에 표현된 사산오대와 자계주변공간의 공간특성과 그림 4에

표 1. 문헌에 표현된 사산오대 및 자계주변공간

구분	공간 특성	배치순서
1) 이연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락당〉: 자연에 집을 짓고, 손수 송죽을 심어 숲을 이루다. *〈관어대〉: 맑고 고운 작은집이 푸른 시냇가에 있어, 노는 고기를 보네. *계정: 새로 지은 집 한 채 시내를 굽어보네. *정심대: 개울이 깊어 물이 맑다. - 정심대즉경 	
2) 박인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락당: 푸른 덩굴을 헤쳐 들어 있고, 그윽한 경치가 견줄 데 없고, 시내 따라 천그루 대나무가 둘러 있다. *관어대: 짙은 듯한 반석, 주변에 회재가 직접 심은 장송이 옛 빛을 띠었다. 층암절벽이 운모 병풍되어 벌여 있고, 백 척의 맑은 못에 하늘이 어려 잠겼다. *조기: 맑은 시내 비껴 건너에 이끼 덮인 뉘시터. *영귀대: 올라서 아름다운 경치에 흥취가 절로 난다. *연당: 영귀대 아래에 있고, 연꽃잎에 가랑비가 구슬로 흠어지다. *정심대: 폭포를 멀리 보니 낭떠러지 높은 끝에 긴 시내가 걸렸는 듯, 거울같이 맑은 물에 산 그림자 잠겨 있다. *탁영대: 연천(웅덩이, 못), 맑은 못 *사자암: 사자암에 올라 도덕산을 바라보다. *기암: 기대서서 시내따라 살펴보니... *서원: 시냇가 반석 위에 지었다. *용추: 세심대 내린 물이 흘러 잠긴 깊은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 내 공간이동 독락당→양진암→관어대→자계→조기→영귀대→연당→폭포→정심대→탁영대→사자암→자계기암→독락당→서원→세심대→용추
3) 오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심대: 서원의 서쪽, 너럭바위에 수백명이 앉을 수 있다. *연못: 작은 폭포가 세심대에서 떨어져 못이 되고, 물이 맑다. *용추: 못 위의 서쪽 바위 *독락당: 용추에서 북으로 수십보, 회재 선생이 한가하게 사시던 곳 *계정: 독락당 북쪽 *관어대: 독락당 아래, 세심대와 비슷한데 바위색이 더 맑고, 윤기 있다. *영귀대: 관어대와 마주하고 있다. *연지: 영귀대 북쪽, 지금은 버려진, 연지와 영귀대 아래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가 푸르다. *정혜사: 계정 북쪽으로 수십보, 선생이 독서하던 곳, 북쪽 창에 선생이 쓴 글씨가 있다. *정심대, 탁영대: 정혜사에서 조금 동쪽, 그윽하고 빼어난 정취가 관어대와 으뜸을 다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 내 공간이동 세심대→연못→용추→독락당→계정→관어대→영귀대→연지→정혜사→정심대, 탁영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계 이가순의 옥산구곡 송단곡→용추곡→세심대곡→공간곡→관어대곡→폭포암곡→정심대곡→탁영대곡→사자암곡 	
5) 박계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추: 상중하가 있다. 물결이 멈추어 괴이니... *세심대: 용추의 북쪽, 마음을 씻어내는 곳. *자옥산: 독락당 오른쪽, 독락당: 자옥산 아래, 무학산: 독락당 남쪽에 있다. *계정: 독락당에 있다. 소박하면서도 호기 있다. 계정 남쪽에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다. *관어대: 종일 앉아 홀로 물고기를 바라보고, 만물의 근본에 도달한다. *영귀대: 관어대와 함께 계정 동쪽에 있다. *정혜사: 독락당 정일좌향, 등나무 덩굴이 하늘을 덮다. *정심대: 정혜사 왼쪽 앞에 가장 머물기 좋은 곳, 경계가 그윽하고, 나무녹음이 훌륭하다. 맑은 연못이 있어 벽옥을 머금으니... *탁영대: 연못의 위쪽에 있다. 탁영대 아래 계류가 깊은 곳까지 맑다. 새들이 지저귀면 가까운 곳에서 대답하니 근심이 떨어지네. *도덕산: 자옥산 북쪽, 화개산은 정혜사 북쪽에 있다. *사자암: 자계의 상류에 있고, 기이하고 벽담은 빼어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 내 공간이동 자계→용추→세심대→자옥산→독락당→무학산→계정→관어대→영귀대→정혜사→정심대→탁영대→도덕산→화개산→자계→사자암

(표 1 계속)

구분	공간 특성	배치순서
6) 노수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옥산: 독락당 오른쪽, 운무에 수석 또한 기이하다. *계정: 계정 앞 계곡에 심은 송죽은 선생이 심었다. *탁영대: 세심대 위에 있다. 물이 맑고, 맑고 맑은 햇살이 비추니... *정심대: 연못수면에서 달빛이 부서져 허공으로 사라지네. *조기: 푸른 빛 바위와 맑은 계곡 물, 이끼 낀 물가 *용추: 상중하가 있다. 차가운 물이 괴어서 웅덩이를 이룬다. *서원: 세심대 위에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 순서 자옥산-독락당-계정-관어대-영귀대-탁영대-정심대-세심대-연당-조기-폭포-용추-서원-자계곡구
7) 박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어대: 대 아래에서 물이 솟는다. *정심대: 연못과 더불어 마음 깊은 곳도 맑아지니. *조기: 산의 이끼 낀 물가에 뉘시터 *용추: 귀한 자연이 못으로 자맥질하니... 	6)와 동일
8) 경주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심대: 서원 행단아래, 반석이 평탄하여 주위가 넓다. *용추: 계곡의 물이 반석 사이에 굽어쳐 폭포가 되고, 그 아래가 깊은 곳, 길이 4-5척, 폭 1척, 퇴계 선생이 바위 서측면에 '용추' 두 글자를 새김 *관어대: 계정아래 반석, 평탄하여 30-40인이 수용. *영귀대: 관어대 동쪽 언덕에 있는 암석으로 두기하여 평평하다. *탁영대: 정혜사 동쪽 자계에 있다. *정심대: 정혜사 동쪽 자계에 있고, 탁영대와 쌍으로 솟았다.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주이씨세보 1권 옥산마을지도 (그림 2)에 오대의 배치순서 세심대→관어대→영귀대→탁영대→정심대 	
10) 김관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어대: 계정을 받치고 있는 시냇가의 반석 *영귀대: 관어대 동쪽 약 70m 떨어진 언덕에 바위 *탁영대: 관어대 북쪽 약 150m 떨어진 냇물에 나지막한 폭포를 이루고 있는 바위 *정심대: 탁영대 북쪽 약 300m 떨어져 있고 지금은 콘크리트로 된 낮은 독에 의해 물이 고여 있는 시냇가의 바위 *세심대: 관어대 남쪽 약 600m 떨어진 시냇가의 바위, '세심대'라고 새겨져 있다. *옥산서원: 세심대 동남쪽 옆. 1573년 회재를 봉향하기 위해서 향인들이 지었다. *정혜사지: 독락당 서북쪽 약 300m에는 정혜사지탈(국보40호)이 있다. 혜사는 신라 고찰로서 회재가 드나들며 학문을 닦은 곳. *자계: 오대를 연결하듯이 흐르는 시내 *연당: 관어대 동쪽, 영귀대 서쪽 약 30m에 있는 방형 연못 *조기: 관어대에서 자계 건너편으로 있는 뉘시터자리 *송림: 독락당 일곽 북쪽 회재가 심었다는 소나무 숲 *죽림: 독락당 일곽의 동쪽 자계 건너편 언덕에 있는 대나무 숲으로 지금은 일부만 남아 있다. *용추: 세심대와 그 옆 폭포 아래에 있는 수심이 깊은 자계의 일부 *사자암: 정심대 북쪽 약 150m 지점의 자계에서 서쪽가에 콘크리트독에 묻혀있는 바위 *범바위: 사자암 동북쪽 약 100m 떨어진 논 가운데에 있는 바위 	(상류에서) 사자암(-범바위)-정심대-탁영대-관어대(-조기-연당-영귀대)-세심대-용추-서원

(자료는 표기된 그대로 반영, 오타나 오류기로 판단되는 글자에 아랫줄을 표기 →공간배치순서, < >는 시에서 구체적으로 명명하지 않은 공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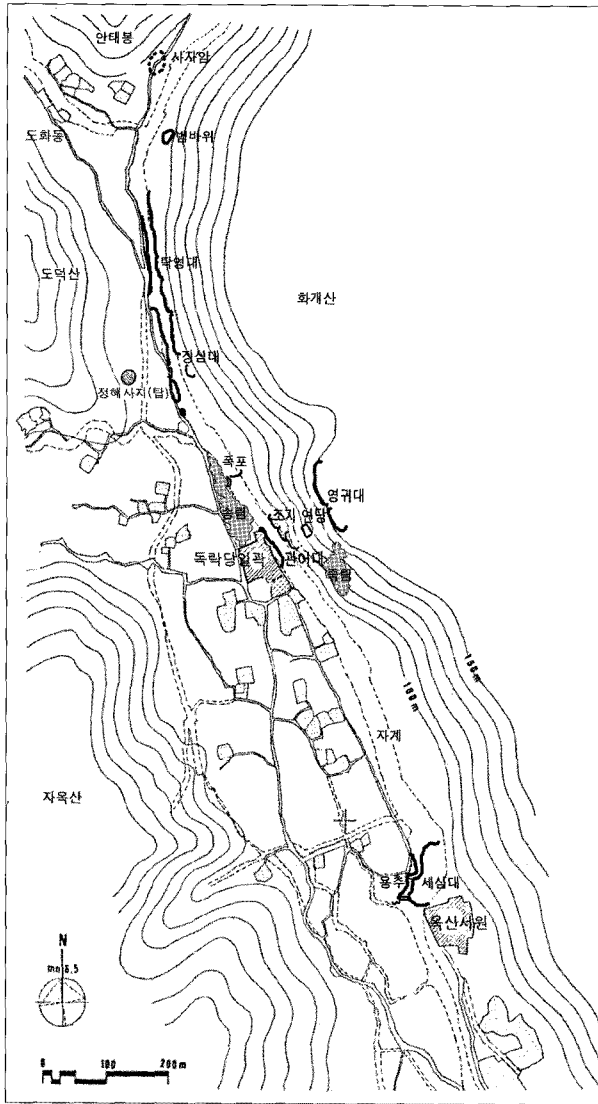


그림 3. 사산오대의 위치도
 자료: 김관석, 1984. 필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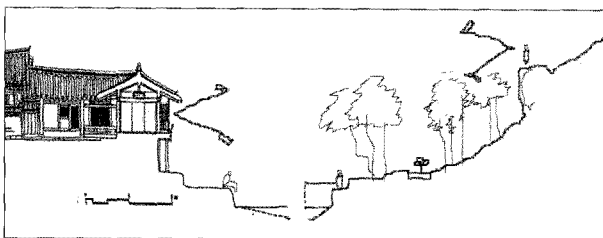


그림 4. 계정 횡단면

추정된 위치를 종합해 보면, 회재에게 조영의 대상이 된 '산수'는 자연지형의 특이함과 다양함이 돋보이고, 장소의 정체성 즉 도학적 지향인 자득을 위한 자연이며, 속세를 떠나 은거하는 삶 속에 전원을 즐길 수 있는 풍류 재현의 미적 공간이다.

취해진 자연지형은 산수미가 돋보이는 물과 암석 중심의 승

경처로 다양한 형상의 층이진 녹색반석이 특징적이다. 세심대, 관어대, 조기는 수평적 지형특성으로 장소와 시점의 상호전이가 용이한 특성을 갖고, 영귀대, 정심대, 탁영대, 용추는 수직적 특성으로 주변의 초점적 경관요소가 된다. '대(臺)'라는 지형의 특성은 주변환경에 따라 대 상부의 공간체형을 다양화한다(표 2, 3 참조).

표 2. 오대의 특성

	물리적 특성	체험적 특성	전경
세심대	어둡고 윤기나는 반석은 주위가 넓고, 상하류는 폭포로 연결된다. 주위는 숲에 쌓여 있다.	하늘이 넓게 개방되어 맑고, 용추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웅장하고 역동적이다.	
관어대	계정을 받치고 있는 옥색의 맑은 반석이 짙은 듯 하고, 층암 절벽으로 둘러싸인 아래 연못은 넓고 맑다.	맑고 고요한 못에 하늘이 어려서 잠기고, 노는 물고기가 보인다.	
영귀대	화개산 허리에 높게 돌출된 각진 바위. 주변에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하다.	높아서 바람이 시원하고, 주위를 두루 조망할 수 있다.	
정심대	계곡에 솟은 바위. 아래 연못은 깊고, 거울 같이 맑다. 나무녹음이 훌륭하다.	수면에 산 그림자 경계가 그윽하고, 머물기 좋은 편한 곳	
탁영대	계곡에 솟은 바위. 아래 계류가 깊고 맑다. 산에 가깝다.	그윽하고 정취가 빼어나다. 새소리가 가깝게 들린다.	

표 3. 지계주변공간의 특성

	물리적 특성	체험적 특성	전경
조기	맑은 시내 건너에 이끼 덮인 푸른 빛 바위	맑은 물가에 낚시터	
연당	영귀대 아래 연을 심던 방향 못	연꽃잎에 가랑비가 구슬로 흩어지다.	
용추	계곡의 물이 반석 사이에 굽이쳐 폭포가 되고, 그 아래가 깊은 곳. 퇴계 선생의 글자가 새겨짐	떨어지는 물소리가 웅장하고 역동적이다.	

N. 경관조영의 특성

1. 취경(取景)과 명명(命名)을 통한 장소화

(중략)... 자연에 집을 짓고 살면서...(중략)...만물의 변천은 일정한 자태가 없고...(중략)...종일토록 노는 고기를 보네... (중략)...이중에 빼어난 곳을 찾고자 하면 두견새 소리 속에 달이 솟아오네...(임거십오영 중에서)

회재의 '임거십오영'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경관을 취하고 (取景) 이름을 짓는(命名) 과정은 자연에 유거하면서 긴 시간 관찰과 감상의 미적 체험 속에서 완성된다.

주변 자연물에 '명명'함으로써, 독락당의 영역은 담이 둘러쳐진 한정된 영역에서 계속 전체로 확장된다. 원경에 사산은 독락당에서 외부로 확장된 시선을 한정하는 경계이고 환경의 틀이 된다. 사산을 명명함은 시각적으로 경관을 차용하는 '차경' 기법에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유불선 사상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작정자의 이상적 지향을 표현함으로써, 시각의 확장과 함께 자연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여 장소화하고, 상징적 산수미를 획득한다.

자계에 세심, 관어, 정심, 탁영대는 세속을 떠나 자연으로 이어지는 도학적 관념이 형상화된 일련의 공간으로 구성되고, 자계의 연속적인 선상에 배치된다. 자계라는 동질적인 공간에서 바위와 경관이 수려한 곳을 찾아 명명하는 것은, 연속적 상황에서 특별한 대상을 분리해 내는 것이다. 이 때 전체 중 일부만이 '만들어진 공간'이 되고, 그 공간이 거점이 되어 연결되면서 자계 전체가 의도된 공간적 질서를 가진 '하나의 원림'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회재에게 자계의 명명된 공간들은 독락당을 출발하여 '소요(逍遙)할 수 있는 구현된 이상향이자 미적 체험의 장(場)이다. 자계는 산수미 감상의 대상일 뿐 아니라 성정을 기르는 '수양의 장소'로, 자연과 조화하여 유한(幽閑)하고 '안분자족(安分自足)하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독락당 원림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서, 조영자의 사상적·미학적 관점이 반영된 취경, 명명, 최소의 조작을 통해 의도된 공간질서를 획득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미적체험이 이루어지면서, 작정자만의 '사유화된 자연'이 되었고, 다른 감상자에게는 '회재의 재현된 산수미'를 감상하는 조영된 원림이자 미적 체험의 장소가 되었다.

2. 경관조영의 특성

1) 인공과 자연의 공간적 연결

독락당 일곽은 낮은 입지와 수평의 낮은 건축으로 내외부의 시선을 은폐하여 처리하고, 측면의 자계를 향해서는 다양한 개방적 처리를 도입하여 건축공간과 자연을 연결했다. 계정의 건

축적 정면을 마당이 아닌 측면 자계로 향하게 하여, 넓게 개방된 누마루를 통해 건축 내부에 적극적으로 자연을 끌어들이었다(김봉렬, 2006). 독락당 경계에 놓여있는 독창적 경관요소인 '담장에 낸 살창'은 채와 마당에서 계류를 향해 시선을 확장시켰고, 자계와 송림을 향해 설치된 협문들은 동적인 개방성을 취함으로써, 자연과의 연결에 적극성을 띄었다. 경물에 의미를 부여하여 관념적으로 자연을 소유하거나, 창을 열고 담을 너머 소극적으로 자연을 유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입지와 건축요소, 수림조성 등을 이용하여 경관을 체계적으로 제어하고, 인공과 자연을 공간적으로 연결했다.

2) 공간의 점진적 배치와 유기적 영역성

사산오대와 자계주변공간은 원경에 사산, 중경에 남북방향 자계를 중심으로 한 오대, 근경에 계정을 중심으로 한 동서방향 경관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여 원림을 경영했다. 계정영역은 서쪽 원경의 자옥산-안채공간-계정-관어대-자계-조기-연당-죽림-영귀대-화개산으로 이어지는 자연을 향한 전계를, 자계영역은 남쪽 원경의 무학산-용추와 세심대-계정과 관어대-정심대-탁영대-사자암-도덕산으로 이어지는 도학적 이념을 향한 공간의 점진적 전계를 보인다.

계정이 중심이 된 풍류와 자연감상의 영역은, 자계를 중심으로 관어대 위에 우뚝 솟은 계정과 화개산 허리에 돌출된 영귀대가 깊은 'V'자형의 지형을 만들고, 그 특성으로 계정과 영귀대에서는 위요되면서도 원경을 향한 시선의 개방성을 확보했다(그림 4 참조). 계정에서 관어대-자계-조기-연당-영귀대-화개산으로의 조망과 영귀대에서 자계-관어대-계정-자옥산으로의 조망은 각각의 공간이 조망점과 조망대상이 되는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체험자의 관점에 따라 공간이 유기적으로 영역성을 만들게 된다.

3) 사유화된 자연의 장소화

회재는 자연을 향하여 건축의 정면을 설정한 계정을 중심으로, 자계를 가로지르는 경관축에 관어대, 자계, 조기, 연당, 영귀대를 배치하여 자연에서 자신만의 원림을 경영했다. 계정 북쪽에 송림과 독락당 남쪽 자계 건너에 조성한 죽림은 공간을 위요하여 계정 주변의 영역성을 높이고, 연당을 조성하여 정원적 특성을 강화했다. 계정 난간에 기대어 연(연당)과 대(죽림)를 감상하고, 그 대나무를 꺾어 물가 바위(조기)에서 낚시를 즐기고, 가까운 높은 바위(영귀대)에 올라 시원한 바람 쐬며 시를 읊는 행위들은, 경승지를 '탐승'하는 감상태도와는 다른, 일상과 결합되어 자연에 유유자적 머무는 '유거'의 미적 체험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도학에서 공식화하는 관념적 미의식의 범위를 넘어, 자연의 공간과 현상을 대상으로 공감각적

차원의 체험을 위한, 의도된 공간적 형식과 연속적인 체험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은 회재가 '무한한 자연'에서 자신만의 '사유화된 자연을 장소화'한 경관조영의 특성을 보여준다.

V. 결론

회재 이언적에게 독락당(獨樂堂) 원림은, 은거를 위한 공간이자,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섭리를 탐구하고 도학적 사유를 성숙시킨 관념적 이상의 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자연의 구체적 인 현상과 공간적 특징을 공감각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자연과 합일했던 '재현의 미를 실현시킨 장'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문헌을 바탕으로 상이한 오대의 위치를 새롭게 추정하고, 추정된 사산오대와 자계주변공간의 공간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회재가 원림경영의 방법으로 택했던, 취경과 명명의 조영행위를 장소화 과정으로 구체화하여 해석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독락당의 경관조영특성을 도출했다.

독락당 원림의 경관조영특성은 인공과 자연을 공간적으로 연결하고, 시선과 동선의 연속성으로 공간을 유기적으로 영역화하며, 일상과 접목된 미적 체험을 통해 무한한 자연에서 회재만의 '사유화된 자연의 장소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조영특성은 인위적인 공간조형의 태도와 다른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즐기는' 전통적인 자연관에서 비롯되었고, 관념에 치우친 조영태도와도 구분되는 조영자의 사상적, 미학적 관점이 투영된 의도된 공간질서를 포함하는 '장소화'라는 점에서, 실천적인 원림조영기법의 하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주 1. 이종호(2007)의 연구에서, 산수는 첫째 산과 물을 말하는 지리적 형제와 둘째 산수에서 나오는 미학적으로 가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산수를 중심으로 자연계의 확장된 의미를 포함한다. 여기서는 선인들의 사상 속에 내재되어 우리의 문화적 삶을 가능하게 했던 산수미학적인 것을 의미한다.
- 주 2. 권정은(2006)은 연구에서 강호가사와 기행가사에서 자연미의 체험을 유거와 탐승의 체험으로 구분하고, 이 때 체험되는 풍경을 시각체험의 결과물로 설명하고 있다. 문학작품에서 자연미를 해명하는 시도는 공간체험과도 연계성이 높다고 보인다. 단, 자연미의 체험을 시각에 한정된 부분을 공감각적 체험으로 확장하여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 3. 정해사지 13층 석탑(국보 제40호),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탑 양식.
- 주 4. 탁영탁족의 고사와 관련이 있다. 갓끈과 발을 물에 담가 씻는다는 뜻으로, 세상의 부귀영화에 얽매임이 없이 자연에 순응하면서 순진무구한 아이들처럼 맑고 초연하게 살아감을 비유한 말이다. 『맹자(孟子)』 「이루상(離婁上)」 편.
- 주 5. 장자가 혜엄치는 물고기를 보며 '어락(魚樂)'이라고 말하니, 혜자는 "당신이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가?" 라고 비아냥거렸다. 이에 장자는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 하는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 주 6. 사자암과 범바위 설명에는 '정심대 북쪽 약 150m 지점 자계에서 서쪽에 콘크리트둑에 묻혀있는 사자암, 그 동북쪽 약 100m 떨어진

진 는 가운데에 범바위'로 표기되어 도면표기에 오류가 확인됨.

- 주 7. 독락당 대청에는 현관 2개를 제외한 15개의 편액이 걸려 있다. 편액의 내용은 독락당에 관련된 고시이며, 해서체와 초서체를 음각한 것이다.
- 주 8. '임거십오영'은 이언적의 문학적 향기가 잘 나타난 작품으로 그가 45세 때 지었다. 벼슬에서 물러나 옥산에 독락당을 짓고 주변을 조영하여 자연과 책을 벗 삼아 소요하며 지내고, 그 속에서 학문 연구와 도학적 사유에 잠겨서 우리나라는 관조의 의경을 시로 읊었다. '정심대즉경'은 마음을 맑게 하는 정심대에서의 정서와 도학적 사유를 읊었다(장도규, 2002).
- 주 9. 노계(蘧溪) 박인로((朴仁老, 1561-1642). 조선 중기 무신 겸 시인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守門將)·선전관을 지냄. 특히 가사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주요 작품으로 『노계집(蘧溪集)』, 『태평사(太平詞)』 등이 있음. '독락당'은 노계가 만년에 회재가 살던 경주 옥산의 독락당을 찾아갔을 때(광해11년, 1619)에 지은 가사로, 자신이 늙어 독락당에 찾아가서 회재 선생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곳의 뛰어난 아름다운 경치를 중국의 사적들과 견주어 가며 노래하는 내용이다. 3음보 혹은 4음보를 1행으로 총 123행, 노계의 가사 중 가장 길다. (김하명 역(2005),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 겨레고전문학선집 10, 파주:(주)도서출판 보리, pp. 209-229)
- 주 10. 오숙(吳翹, 1592-1634), 조선 중기의 문신, 광해군 때 병조좌랑, 인조반정 뒤, 정인·고리를 지냄. 이괄의 난 때 왕을 호종한 공으로 병조참지가 되고 황해도 관찰사로 가도(假島)의 분쟁을 수습함. 1646년 오숙의 아우 오빈이 편지·간행한 문집 『천파집(天坡集)』(총4권)에 수록된 '유옥산서원기'는 후학인 오숙이 이언적을 흠모하며, 독락당 일대를 유람하고 쓴 글임(이종복, 2006).
- 주 11. 하계(霞溪) 이가순(李家淳, 1768-1844), 조선후기의 문신, 퇴계 이황의 후손. '도산구곡', '옥산구곡' 등 구곡시에 능했다.
- 주 12. 관원(灌園) 박계현(朴啓賢, 1524-1580), 조선중기의 문신, 1567년 경상도 관찰사로 나가 이언적의 신원을 제청함.
- 주 13. 김관석은 84년 당시 회재자손이 알려준 위치를 근거로 했고, 그의 견해로는 알려준 장소가 정심과 탁영이라는 말 뜻에 어울리는 동굴이었다고 설명함(2010년 8월 7일 메일답변 내용 요약).
- 주 14. 회재의 옥산과 현 종손 이해철의 증언으로는, 조상으로부터 전해온 사산오대의 위치가 1950년대에 이제세보에 옥산마을지도로 그려졌는데, 구전으로 전해지는 위치 중에는 정확하게 표시된 지점(유추, 세심대)이 있고, '산중턱에 병풍같이 펼쳐진 바위(영귀대)' 같이 범위가 넓은 경우가 있으며, '정해사지 옆(정심대)', '폭포 위쪽(탁영대)'으로 위치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식생의 변화와 자계의 여러 곳이 농지조성 등으로 지형이 달라지거나, 사자암처럼 없어진 곳도 있어서, 부분적으로 원형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퇴계의 후손 하계(霞溪) 이가순(李家淳)이 쓴 옥산구곡가에는 정심대와 탁영대의 순서가 이제세보와 다른 점을 언급하며, 퇴계연구소의 견해는 구곡가의 특징상 하류로부터 시가 쓰여지는 점을 들어 정심대가 탁영대 위에 위치한다고 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2010년 8월 10일 독락당 공수간에서 연구자와의 인터뷰 내용 요약).

인용문헌

1. 강순영(2009) 임거십오영의 시문분석을 통한 독락당 일대의 경관해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권정은(2006) 유거와 탐승, 자연미의 상보적 기반,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3. 김관석(1984) 조선시대주거 「獨樂堂」 일곽에 관한 연구(I), 대한건축학회지 28(121): 32-39.
4. 김관석(1985) 조선시대주거 「獨樂堂」 일곽에 관한 연구(II), 대한건축학회지 29(122): 4-9.
5. 김봉렬(2002) 조선중기 도학시의 생태학적 상상력, 동양한문학회지 25: 251-283.

6. 김봉렬(2006)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 2, 삶과 삶의 공간: 파주: 돌베개. pp.120-121
7. 김석수, 최효승(2003) 독락당 일곽의 조영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11): 199-206.
8. 김성원(1998) 한국 전통건축에서 둘러쌓의 표현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독락당 일곽의 공간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하명 역(2005) 정철, 박인로, 윤선도 저,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 겨레고전문학선집 10. 파주:(주)도서출판 보리.
10. 박해성(1999) 독락당의 공간표현과 사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유호진(2004) 조선중기 도학시와 생태학적 상상력. 동양한문학회연구 25: 251-283.
12. 윤일이(2002) 晦齋 李彥迪의 建築觀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11)(통권169호): 117-124.
13. 이승민, 최기수(2002) 회재 이언적의 조영관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20(3): 15-25.
14. 이종묵(2006) 조선의 문화공간 2책. 서울: 휴머니스트.
15. 이종호(2007) 퇴계 이황의 자연미 수용과 산수미학. 경북대 퇴계연구소.
16. 장도규(2002) 이언적 시에 나타난 도학적 사유의 표현. 한국사상과 문화 13: 5-28.
17. 장도규(2006) 회재 이언적의 삶과 임거십오영.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지 16: 63-84.
18. 한국문화재청(2002) 독락당: 실측조사보고서 제27호.
1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007) 바위틈에 핀 들꽃: 여주이씨 독락당편.

원 고 접 수 일: 2010년 10월 19일
 심 사 일: 2010년 11월 11일(1차)
 2010년 12월 12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10년 12월 16일
 3 인 의 명 심 사 필